

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북한과의 맹목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며 국방 빚장을 풀어버린 지난 문정부의 대북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핵무기와 신형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믿고 있는 자금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진실은 그 안에 있다. 북한의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핵능력이 고도화 될수록 한·미의 전략적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전술핵무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미를 계기로 국가의 주권(主權)과 국격(國格)을 지키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영웅 왜곡은 반(反)국가 행위"라고 언급, 유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갈망하며 듣고 싶었던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명언을 남겼다.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거짓 평화의 환상에서 깨어날 때다.//

자성(自省)을 지킨다는 것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주) 토브넷회장)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남들의 칭찬을 받거나 실력을 인정받아 명성을 얻을 때가 아니다. 그보다는 뭔가 잘못되었던 순간, 실패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잘못된 실패를 바로 잡으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높고 더 멀리 인생을 내다볼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깨우치는 건 기쁨 때는 배울 게 없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많이 배운다는 사실이다. 고통과 슬픔은 우리 인생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 기폭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행복과 기쁨 대신에 고통과 슬픔을 원할까요? 한 때 명성을 날리던 성악가 캐슬린 배틀 인생을 보면 이게 바로 알맞은 삶의 아이러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출신 캐슬린 배틀(Kathleen Deanna Battle, 1948-)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공부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James Levine)을 만나 크게 고무 받았다. 그녀는 서정적인 소프라노 음성과 독특한 기교로 전세계의 청중을 사로잡아 1980~1990년대 우리시대의 최고의 가수로 인정받으며 흑인 성악가로 우아하고 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소프라노가 되었다. 그녀는 블랙스완(Black Swan, 흑조(黑鳥))라는 전설의 성악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전성기 시절 현란한 테크닉을 뽐내며 부르는 천상의 목소리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관객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캐슬린 배틀은 일명 '핑' 발성이라 불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화살이 과녁에 명중하듯 3층 관객석까지 낭랑한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한다.

그녀는 1977년 메트 오페라에 데뷔하며 오페라 스타로 점점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기가 치솟을수록 그녀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며 고집불통이 되어갔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을 내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오페라는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동료들이 그녀와 작업하는 것을 몹시 꺼렸다. 그녀는 리허설에 늦거나 공연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녀는 스스로 고립되어갔다. 결국은 1994년 그녀는 교만함으로 메트 오페라에서 퇴출을 당하고 만다. 그 이후 그녀는

오페라무대에 서지 못하고 독창회 등 개인적인 소프라노 활동밖에 할 수 없어서 서서히 대중들로부터 잊혀지는 불행한 소프라노가 되었다. 캐슬린 배틀 같은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악가가 자성을 지킬 줄 알아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블랙스완으로 남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 1987-)는 테니스 변방으로 간주 되던 세르비아 출신으로 2023년 1월에 호주오픈 정상에 오르며 스페인 선수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1986-)의 메이저 대회 역대 최다 우승 기록(22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수로 우뚝 섰다. 이어서 2023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서며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자로 우뚝 섰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23회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대회에서 라켓을 내던지고 괴성을 지르며 어떻게든 이기고 마는 고집 센 동유럽 선수로 팬들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다. 더구나 2022년 초에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에서 추방당하며 세계적인 '악당'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던 그가 최근에는 우승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세계 곳곳의 테니스 꿈나무들에게 꿈꾸는 것을 두려워 마라. 너의 꿈을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어려움이 닥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도전 앞에서 기죽지 마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며 '꿈'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는 큰 부상이 없는 한 향후 몇 년은 테니스 스타로 건재할 것 같다. 그의 '꿈'에 대한 열변은 세계 어린 테니스 꿈나무들에게 존경 받는 테니스 스타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노자의 『도덕경』 곳곳에 "공로가 이루어지면 몸을 물려야 하는 것은 하늘의 도(道)이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흰히 드러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자기 공로가 있게 되고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니 오래간다."는 명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로가 없어지며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는 오래갈 수 없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에게 정직하고 스스로를 이긴다는 것이 실력보다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만들기 쉬운 음식은 없다

윤은기 (예 중위, 학사 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음식 만들기는 융복합 작업
식자재 공합·불 조절 중요해
정성 갖든 예술작품과 닮아

아내를 제일 기쁘게 하는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것
"더 먹고 싶다" 최고의 칭찬



을 할까?
요리교실을 일년 다녔다고 음식을 잘 만들 수는 없다. 그래도 나는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 밥 한그릇, 국 한그릇,

반찬 한접시가 그냥 식탁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부터 떠올랐다. 칠남매나 되는 대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매일 음식을 차리셨으니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을까. 어려서 흑시 밥투정이거나 반찬 투정을 했을 때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자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주방에서 음식 차리는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졌다. 여자들은 원래부터 음식을 잘 만드는 줄 알았다. 음식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았다. 조금이라도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라 매일매일 애쓰고 있는 걸 깨닫고 이제야 후회하고 있다. 요즘은 아내가 음식 만들 때 다가가서 내가 도울 게 없느냐고 묻는다. 요리교실 수료증이 있어도 실력이 없는 걸 아는지라 딴 일을 시킨다. 나는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음식을 나르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한다. 아내를 위해 커피도 한잔 내린다.

이제는 아내를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언지 안다. 식탁 차리기도 아니고 설거지도 아니다. 아내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맛있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미리 말한다.

"오늘 김치국이 정말 맛있네." "더덕구이가 예술인데. 향도 아주 좋고."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을 때는 한번도 빼놓지 않고 꼭 이런 칭찬을 한다. 아내의 표정이 환해진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지면 공연자들은 큰 기쁨을 느낀다. 앙코르 합성이 쏟아지면 황홀감을 느낄 것이다. 나도 어느덧 주방 출입 3년차다. 음식 만들기는 여전히 왕초보지만 음식 만들어주는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는 건 이제 눈치 백단이다. 식탁에서도 앙코르를 한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조금 더 먹으면 안 될까?//

시인의 말----혼자 외쳐보는 독백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우리는 살면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맴돌고 있는 날선 위기감----
'이대로는 절대

아니다'라는 소리없는 아우성----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는 이제 삶의 족쇄가 되어 크고 견고한 나만의 성을 쌓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리가 귓전을 자주 때립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건데----
현실에 견고한 성을 쌓고 안주하고 있는 나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금년 여름에는 어디론가 그냥 훌훌 떠나기로 마음먹어 봅니다.

내 인생 무게 만큼의 배낭을 꾸려 짐을 채우고 고향을 떠날 예정입니다.

'저질러야 삶이 자기것이 된다'는 정진홍 교수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고향을 후회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생각

합니다. 메마른 아스팔트를 기어서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는 달팽이를 보면서 '인생의 산소는 도전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는 명제를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관초우의와 매트레스로 외국의 혐지에서 비박을 하면서 48일간 산티아고를 향해 걸었던 정 진홍 교수는 인간이 자고 나면 자국이 남는데, 그 흔적을 보면 1평 내지는 1평반 밖에 안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잡자리 흔적 넓이에 추가하여 50~60세부터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물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물음 자체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꿈을 잃으면 삶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미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 꿈의 실타래를 열심히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과 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누군가를 감싸주고 포용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여정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웃기를 스치는 인연이란 말이 있지요. 그리고 인생은 여차피 왕복표가 없는 길이기 에 매일 독을 먹으며 죽어가는 것이지만, 그 유일한 해독제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친구들과 끼리의 사랑, 전우애,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를 모두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참 기이하고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바람처럼 다가와 땀겨워 당신과의 인연은 7000겹에 육박하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회전 목마와 같은 것---- 영원히 선택의 연속임이 분명합니다.

사랑은 예측할 수도 없고 다 알수도 없는 미지의 어떤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는 결단코 승리할 것이며 내 인생의 조그만 1평 터밭이 기름진 사랑의 옥토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겨울의 차가움속에서도 따사로우름을 간직하여 다른 사람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마음과 눈송이처럼 어디로든지 날아가, 녹아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희생적인 사랑"을 자작시 "하얀사랑"에 주어담고 싶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은실 한 올 바람에도 꽃잎 뿌리며 환호하는 영혼화처럼 나는 누군가를 온 몸으로 사랑한적이 있었다는 긍지를 되새기면서 이 시대의 아픈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과 섬나라 왜구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오다 결국에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6·25전쟁까지 겪어온 민족이다. 지금도 6·25 전쟁의 아픔은 수많은 이산가족과 더불어 유가족을 남긴 상태로 반도의 허리는 잘리어 있고, 155마일 휴전선 비무장지대에는 전사한 전우의 넋(魂)인 듯 어김없이 하얀 망초꽃들이 다투어 핀다.

옛날부터 조선이 망해가는 시절이 망초꽃 피는 시절이라고 하여 이름 지어진 망초꽃의 꽃말은 '화해'라고 한다. 6월이면 한반도의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나 바람결에

하얀 꽃대 흔들리는 망초꽃의 바람처럼 이제 남·북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전쟁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가 좌표로 세워야할 호국의 길은 긴장감이 감도는 전투태세의 현장에서 실전적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며, 6월 한 달 잠깐 기억해내고 추모하는 호국영령들도 아니다. 이미 군의 현장을 떠나 사회 각 분야에 귀환(歸還)하여 제2의 삶을 이어가는 예비역으로써 조국수호의 현장에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힘을 모아 이끌어줄 때 나라의 안보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호국의 길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 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5월의 푸른 하늘을 향해 우렁찬 굉음과 함께 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하는 은빛 날개 보라매의 능률한 모습은 공군을 떠나 오랜 세월 예비역으로 살아온 우리들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코로나19의 창궐에 의해 그간 단절되었던 '예비역초청 정책간담회'를 최신에 전투기가 조국의 서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20전투비행단에서 열렸다. 초청 대상이 대부분 70대를 넘어선 예비역들이 주축이였고, 더러는 90대를 바라보는 원로들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더욱 반가움에 설렜다.

전세버스들이 전국 각지에서 새벽부터 출발하여 기지강당 앞에 들어서고,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옛 전우들은 피로감도 있는 채 반가움에 그간의 안부를 물으며 두 손을 맞잡고 감회에 젖어들었다.

우리 공군의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고, 제 공권을 확보하여 적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군인으로서 호국의 길이란 자기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 길이었다. 조종사는 탁월한 조종술로 실전적 책무를 담당하고, 정비사는 전투기가 무사히 비행할 수 있도록 정밀한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야는 우리 인체의 혈액과도 같

은 보급수송의 임무였다. 언제나 적기적소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줌으로써 완벽한 공군의 전투력을 갖출 수 있다. 긴박하고, 분초를 다투는 시간 안에서 조종사를 전투기까지 데려다주어야 하고, 무장을 위한 탄약을 보급해야 하며,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늘로 이륙하는 순간까지 완벽한 수송을 담당해야 하는 공군의 중추적 분야가 보급수송 분야다. 나는 그 분야에서 젊음을 다 보내고 명예롭게 정년퇴역을 했다.

정년퇴역 후 18년이란 세월이 덧없이 흘렀다. 매년 한 번씩 공군참모총장의 배려로 '예비역초청 정책간담회'행사가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중단되었다가 5년 만에 재개되는 '예비역초청 정책간담회'다. 기지강당에 마련된 빔 프로젝트를 통해보는 화면 속에 위용을 드러낸 신예(新銳)전투기들의 비행모습과 AI첨단과학시스템으로 변모한 정비내용, 물류보급장면들을 사회자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전투력증강에 예비역 노병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다.

또한 고도의 기술개발로 발전하는 막강한 공군력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우리 예비역들은 안보의 좌표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군인들에게 6월은 잔인한 달이며, 전우를 잃은 슬픔의 달이기도 하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 공존하는 인류사회에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북방대륙

비타민(Vitamin)

전대길 (병176기,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비타민C 결핍으로 생겨나는 괴혈병(壞血病/Scurvy)은 선원(船員)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배가 난파되어 죽는 사람보다 괴혈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옛날에는 괴혈병을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했다. 18세기 중엽 영국 해군 함정에서 한 수병이 다리가 통통 부어 걸을 수 없게 되었다. 선장은 전염을 막기 위해 그를 대서양의 어느 섬에 내려놓았다. 수병은 그 섬에서 풀(Scurvy Grass)을 뜯어 먹으면서 연명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며칠 후 기력을 회복했다.

이 수병의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을 둔 의사가 있다. 스코틀랜드 군의관, 제임스 린드(James Lind) 박사는 영국 해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해마다 수천 명의 수병(水兵)이 괴혈병으로 죽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보통 식사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것이 그 풀 속에 있으며 괴혈병과 음식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관심을 가졌다. 1747년에 린드 박사는 괴혈병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오렌지와 레몬을 먹게 했다. 이를 섭취한 사람들이 6일 만에 건강을 원상회복했다.

당시 의학계는 이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선원들은 레몬주스를 마셨는데도 괴혈병에 걸렸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레몬주스를 끓여 마신 경우였다. 당시에는 레몬주스를 끓이면 비타민

C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

47년이 지나 영국해군은 이런 실험을 다시 했다. 23주 동안 항해하면서 승선한 해군 수병들에게 레몬주스를 충분히 마시게 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괴혈병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1년 후인 1795년 레몬주스는 영국 수병들의 식사에 빠짐없이 포함되었다.

비타민과 관련된 레이건 대통령의 유머를 적는다.

어느 날 레이건 비서가 "미국 국방 예산이 너무 많아 비난이 있다"는 보고했다. 그러자 레이건이 어깨를 으쓱하며 "나는 B-1(미군 군용 비행기)이 비타민인 줄 알고 결재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레이건은 70살 생일파티에서 노령을 오히려 유머의 소재로 삼았다. "오늘은 나의 서른아홉살 생일의 서른한 번째 기념일이다"라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입이 가벼워 서인자 특하면 말실수가 잦다.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千金) 같다"는 "남아일언 중천금(南兒一言重千金)"이란 금언(金言)을 까먹었지 싶다. "지도자는 귀는 크게 열고 입은 굳게 다물어야 한다" TV 화면에 비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불안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의 위트와 유머 감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늘 화가 잔뜩 난 얼굴 표정이다. 두 눈을 씻고 보아도 환하게 웃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링컨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처럼 유머와 위트가 넘쳐나는 정치 지도자를 갈망(渴望)하는 게 무리(無理)일까?//

아름다운 구름 이어라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 공사6기생 회장)

이른 아침 파란 하늘에 수를 놓는 장관의 하얀 구름

서서히 바람따라 조각 구름 솟털 구름 뭉개 구름 비 구름으로 변했다가 사라지겠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변화무쌍한 만물중에

한번 뿐인 당신의 귀중한 인생의 모습

파란 하늘에 수를 놓는 하얀 아름다운 구름이어라//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4월23일 지부 주최의 1전비 장비 및 지부회원 등 44명이 참가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현역

과 예비역간의 친선을 도모하였으며, 4월27일에는 지부회원 및 내빈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안전심사와 정기포상을 실시했다.

그리고 6월 6일 지부 임원단이 광주공원에 위치한 현충탑 참배후 주변 정화작업을 실시했으며, 6월21일에는 영호남 공군전우회원 교류협력 일환으로 대구지부 회원 12명을 초청하여 1전비 단장 예방 및 달빛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우의를 다졌으며, 양개 지부간 교류행사는 2019년부터 년2회 교대 주관 실시해오고 있다.//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6월20일 호국안보순례행사를 회원 60여명이 영천 호국원, 포항에 있는 포항함 순직 영웅 및 학도의용군의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탑과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는 문산호를 방문 참배 및 견학했다. 그리고 6월 21일 1박 2일간 광주지부 초청으로 지부회원 12명이 광주지부를 방문하여 1전비 단장 예방 및 광주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친선운동을 함께 하며 우의를 다졌다.//

부산지부



부산지부는 5월 31일 시내소재 음식점에서 제13대, 14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내외 귀빈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제14대에 신임 김선호 지부장이 취임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김해기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음향기기 1세트(시가 5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인천지부



인천지부(지부장 최용주)는 5월4일 지부임원진(7명)과 함께 육탄 10용사 기념사업회 중앙회 주관으로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개최한 제74주년 육탄10용사 호국영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육탄 10용사는 1945년 5월 개성 송악산 일대에서 북한군의 도발에 맞서 고지를 탈환하다가 장렬히 산화했다.//

제주지부



제주지부(지부장 좌중언)는 5월11일 공군에서 주관한 딘 헤스대령 추모식에 지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그리고 5월13일에는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가 열린 서귀포시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지부장을 비롯한 14명의 지부회원이 참가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행사에 참가한 후배들을 격려했다.//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6월 20일 지회원 약 22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박 지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전우님께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멋진 모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안제성(공사37) 회원을 사무총장으로 추

대했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교육도 실시했다.//

수원지회



수원지회(지회장 송요정)는 4월 24일과 5월15일 양일에 걸쳐 열무김치 800Kg을 담귀 관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께 10Kg씩 포장 전달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수원지회를 방문한 제10전투비행단장 등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는 6.25참전 유공자 원로 선배님 등 16명의 지회회원들이 배석했다.

양평지회



2023년도 3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6월에 양평군 부군수로 취임한 김영태 특별회원이 7월1일 정년퇴직함에 따라 퇴직을 축하하고, 양평전우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지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년간 양평군 부군수로 취임하여 양평지회 활성화를 위해 여러 모로 애써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 6월13일 읍내 식당에서 지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지회



평택지회평택지회(지회장 왕관현)는 5월 23일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주)협진

여객 김학열(병81기) 대표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존 김종필 자문위원과 엄익용 자문위원을 재 위촉 하였다.

그리고 6월 10일에는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단합대회 및 야유회를 태안군 신진도와 흥주사를 거쳐 서산시 개심사 탐방을 하고 뜻 있는 일정을 성황리에 치루고 회원들간 친목을 다졌다.//

원주지회



원주지회(지회장 김구식)는 5월 11일 지회원 41명이 충주 동락전승지 등 사적지를 견학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지회원 29명이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청주지회



청주지회(지회장 이균신)는 4월14일 지회원 44명이 국립공원 변산반도 내소사 탐방 및 새만금 방조제를 답사하여 회원들의

9명이 대전현충원을 찾아 옛 청주지역 전우회원 묘비에서 참배했다.//

힐링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5월 24일과 26일에는 회장단 5명이 인근 17전비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지휘관들과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 15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또한 6월1일에는 지회장의

창원지회



창원지회(지회장 이성배)는 6월 13일 지회 사무실에서 한국응급처치교육원 강사의 지원으로 지회 회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골든타임이 다시한번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임

을 알게 되었으며, 이 지회장은 “회원들에게 위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 잘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 LA지회

미 LA지회(지회장 심인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6월 22일 공군 6.25참전유공자 7명을 초청하여 위로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김은기 중앙회장 축사와 정경두 공사총동창회장의 격려사 대독이 있었으며 후 시상식에서는 조용명, 박진규 부회장이 수상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7

명과 LA지회는 한미동맹강화에 노력한 공로로 미연방하원의원(CA. Young Kim)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이날 참석한 참전유공자들과는 푸집한 선물과 함께 중앙회 회장이 후원해준 블랙이글스 시계와 공사총동창회장의 후원금 및 공사로고 수건도 전달했다.//



회비소식

공군전우회

평생회비 납부하신 분 (2023. 04. 01 ~ 2023. 06. 30 까지)

Table with 8 columns listing members who have paid their lifetime dues, including names like 김명섭, 김중석, 박희중, 안인현, 우병설, 이천수, 전영훈, etc.

연회비 납부하신 분 (2023. 04. 01 ~ 2023. 06. 30 까지)

Table with 8 columns listing members who have paid their annual dues, including names like 권오관, 김병헌, 김원삼, 신학철, 양창엽, 이두환, 임종관, 최상호, etc.

찬조금 기부해주신 분/단체 (2023. 04. 01 ~ 2023. 06. 30 까지)

Table with 8 columns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including organizations like 공사총동창회, 부사관전우회, and individuals like 김주영, 김철구, 안기철, etc.

공군발전협회

평생회비 납부하신 분 (2023. 04. 01 ~ 2023. 06. 30 까지)

Small table listing members who have paid their lifetime dues in the Air Force Development Association, including 변우현 and 최국현.

기부협찬금 납부하신 분/단체 (2023. 04. 01 ~ 2023. 06. 30 까지)

Table with 6 columns listing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including (주)국민은행,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록히드마틴(USD8,000), Raytheon(USD2,000), LIG넥스원(주), (주)풍산, 군인공제회, 학사장교회, etc.